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컨설팅센터 개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종합 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컨설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동안의 예술지원정책이 작품 위주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만 그쳐 예술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급변하는 예술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원컨설팅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에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원 루프 시스템(One-Roof System)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원컨설팅센터에서는 수시신청, 수시심의제도를 통해 예술현장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권익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술지원서비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예술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의:예술진흥실(02-760-4580)

아르코미술관 중진작가초대전 <권부문, 이옥련 초대전>

한국 현대미술계의 허리세대인 중진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된 아르코미술관 <2007 중진작가전>이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권부문(52), 이옥련(58) 두 작가의 초대전이다. 권부문은 2000년부터 제작해온 구름, 별, 낙산, 아이슬란드 시리즈 등을 공개했다. 이들 작품은 하늘, 우주, 바다의 단편을 조각 없이 촬영한 작품들로, 전시장을 세 공간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옥련은 1년에서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주변의 자연 문화현상을 꾸준히 관찰하고 수집, 분류하여 제작한 작품들을 사진 위주로 선보였다. 서로 교차하고 중첩하여 현기증을 일으키는 <만화경>시리즈, 지역 곳곳에 분포했으나 저마다의 색을 담고 있는 도토리나무 이미지 등이 전시됐다.

문의:아르코미술관(02-760-4724, 4726)

신진 큐레이터 공동기획전 <유머러스* 유머러스 U-MIRROR'S HUMOROUS>

아르코미술관은 2004년부터 매년 미술계 전문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CTP(Curatorial Training Program)를 진행해왔다. 이번 신진 큐레이터 공동기획전은 CTP의 교육내용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된 제3기 CTP 전시<유머러스*유머러스전>은 CTP 참가자인 이아영, 이해원, 최윤정, 허광일 4인의 공동기획으로 이뤄졌으며, 손승화, 양재봉, 오수형, 이정현 네 작가가 참여했다. (웹페이지: www.2007uu.com)

문의:아르코미술관(02-760-4724, 4726)

인사미술공간 기획초대전, <윤사비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윤사비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거쳐간 작가들과의 공동작업과 일곱번째 거주작가 여다함, 윤사비의 공동작업이 진행되는 전시가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렸다. 2004년 4월에 시작된 <윤사비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여다함과 윤사비의 <fragile consumer project>는 문화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사인물이 붙는 위치나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개인적인 감각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실험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윤사비와 여다함은 인사미술공간의 레지던스를 작업실로 이용하면서 전시의 컨셉트와 작업방향을 의논했다. 전시명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윤사비가 본인의 작업을 포함해 매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작가들의 작업을 빚낸 것이다.

문의:인사미술공간(02-760-4722)

인사미술공간 <2007 신진작가수첩> 참여작가 선정

인사미술공간은 전시 공간뿐 아니라 홍보, 워크숍, 레지던스, 아카이브 등의 프로그램으로 신진작가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2005년부터 신진작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인사미술공간의 신진작가 지원프로그램인 <신진작가수첩>의 참여작가들로 오진선, 남하연, 손서현, 백병환, 이습, 최해리, 권경환, 이소정, 이지숙, 함해경 등 10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5개월간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다.

문의:인사미술공간(02-760-4722)

박찬경 <비행 flying>, 제53회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초청

인사미술공간의 IASmedia 배급작가인 박찬경이 작품 <비행 flying>으로 국내 미술작가로는 최초로 제53회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초청됐다(독일, 5.3-5.8). 1954년에 창설된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는 독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편영화제로, 탐페레 국제 단편영화제, 플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와 더불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 3대 단편영화제로 손꼽히고 있다.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들로 가득한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는 작은 간느라고 불리기도 한다. 박찬경은 50년 만에 열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영되지 않았던 촬영분(footage)을 포함한 소스 영상을 방송국의 협찬을 받아 편집하여, 1시간 가량의 비행을 13분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에는 1977년 윤이상 선생이 작곡한 <더블 콘체르토>의 앞부분이 삽입됐는데, 이 곡은 견우와 직녀를 불쌍히 여긴 새들이 다리를 놓아 1년에 한 번 만나게 한다는 견우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윤이상은 이 설화를 남북관계에 비유했고, 견우와 직녀의 만남은 통일을 상징한다.

인사미술공간 IASmedia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사미술공간은 한국 비디오아트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6년 8월부터 미디어아트 전문 IASmedia 프로그램을 새로이 준비, 시작했다. IASmedia는 비디오 및 디지털 영상작품의 유통 환경을 보호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디오 아카이브와 콜렉션을 구축하고 배급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자 기획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다. 1월에는 그간 준비해온 IASmedia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런칭했고, 2월 8일부터 10일까지 IASmedia의 2007년 배급작품들을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상영해 다양한 층의 관람객 400여 명이 상영을 즐겼고, 비디오 작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교류 추진 중인 해외 유사기관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어내어,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VIDEONALE 11-Festival of Contemporary Video Art 2007>에 IASmedia Screening 프로그램이 특별전 형태로 전시됐다. 여기에는 IASmedia

배급작가 김성환의 〈flat white rough cut〉 등 총 9개 작품이 출품됐고, 3월 15일 현지에서 배급작가 함양아가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 미디어아트 네트워킹 구축의 주축을 이룰 것이다.

문의:인사미술공간(02-760-4723)

**나라음악큰잔치추진위원회
2006년 사업을 정리한 DVD,
음반, 도서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업 전체를 정리하는 DVD, 음반, 도서를 제작 발간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나라음악큰잔치 DVD 〈소리여정〉은 2006년 나라음악큰잔치의 해외공연과 국내공연에 대한 영상기록을 담았다. 초원의 영고(몽골공연), 적벽대전의 환몽(중국공연), 착한 이웃들의 따뜻한 만남(베트남공연), 국내공연, 세종궁 신바람운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음악의 정수를 모아놓은 음반 〈한국음악의 심상〉과 지난해 나라음악큰잔치에서 공연했던 명인들의 연주가 담긴 음반 〈풍류〉가 나왔다. 〈한국음악의 심상〉에는 수룡음, 우조지름시조 황학루,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단가 이산저산, 적벽가 중 적벽대전, 구음시나위 등 8곡이 실렸고, 〈풍류〉에는 수제천, 영산회상 중 타령-군악, 판소리 수궁가, 아쟁산조, 종묘제례악 중 전폐회문, 가곡 태평가가 담겼다. 이 음반들은 기록의 의미뿐 아니라, 나라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로서의 의미도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출판된 한국음악에 관한 글 중에서 명문장들을 모아 〈우리소리 우리마음〉을 발간했다. 책의 내용으로는 각 대학의 국악과 교수들과 음악평론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글들이 선정됐다. 명인, 명곡, 한민족의 음악, 음악과 인생, 그림에 담긴 국악 등 쉽고

재미있는 글들로 엮여, 우리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문의:나라음악큰잔치추진위원회(02-760-4820)

창작연극이여, 빛을 발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 연극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창작극의 부진, 극작가들의 외로운 작업환경, 일회성으로 그치는 심사제도 등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창작희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 일정기간 전문인력을 배정하고, 작품의 수정 보완, 워크숍,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쳐 낭독공연을 진행하여, 낭독공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극장 공연까지 지원한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작품 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극작가들에게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극장 공연까지 연계함으로써 한국 연극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이번 새로운 사업에 극작가뿐 아니라 연극계의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란다. 지원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문의:예술진흥실(02-760-4584)



음악



조선왕조의 궁중예술

〈봉래의, 봉황이여 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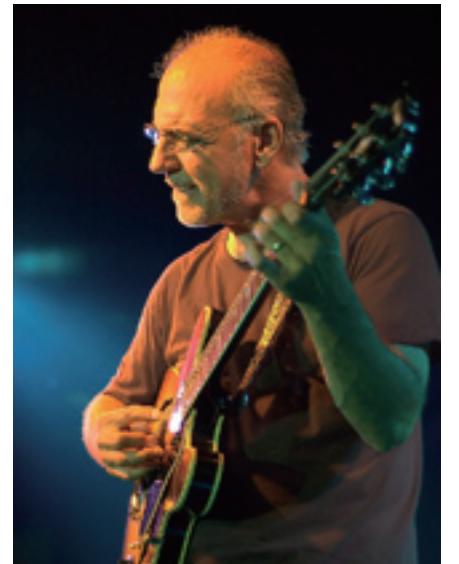
〈종묘제례악〉과 함께 조선왕조 궁중공연의 백미로 꼽히는 〈봉래의〉가, 500년 만에 복원되어 〈봉래의, 봉황이여 오라〉라는 제목으로 2월 23, 24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올랐다. 〈봉래의〉는 15세기 서사시 〈용비어천가〉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등의 궁중음악을 엮고 궁중무용을 입혀 만든 작품으로, 기악, 성악, 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또한 〈봉래의〉는 고유음악인 향악과 전래음악인 당악이 결합된 유일한 궁중음악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복원된 음악에, 1493년 만들어진 〈악학궤범〉의 무보를 토대로 세종 당대의 〈봉래의〉를 원형에 가깝게 재연한 것. 조선전기 궁중복식과 머리모양 등도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새롭게 무대에 올랐다.

재즈 대중화를 위한 축제

2007 World Fusion Jazz Festival

〈2007 월드 퓨전재즈 페스티벌〉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성남아트센터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재미없는 재즈는 이제 가라!'라는 구호를 내건 월드 퓨전재즈 페스티벌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한 차례씩 향후 5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페스티벌 첫 해에 초청된 뮤지션은 '테크닉의 완성본'이라 불리는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카밀로와 '블루스의 두 전설'로 통하는 래리 칼튼과 로벤 포드. 미셸 카밀로는 2004년 재즈 부문 그래미상 수상 앨범인 〈Live at the Blue Note〉를 중심으로 화려한 속주를 선보였고, 래리 칼튼은 로벤 포드와 함께 장르를 뛰어넘는 기타 듀오 연주를 선보였다.





제6회 통영국제음악제 <만남>
아시아의 대표 음악제로 자리잡은 통영국제음악제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윤이상 선생의 고향 경남 통영에서 펼쳐졌다. 올해는 특히 윤이상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윤이상의 작품 <만남(1986)>을 주제로 내세웠다. 이는 윤이상과의 만남은 물론, 고(古)음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서양과 동양의 만남, 뮤지션과 청중의 만남 등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음악 연주의 거장 크로노스 콰르텟을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임동민, 고음악 전문 오케스트라인 르 콩세르 드 나시옹과 조르디 사발, 크로스 오버 빅밴드인 클로드 볼링,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젊은 연주자 80여 명이 시내 곳곳에서 펼쳐는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크로노스 콰르텟과 함께 하는 워크숍 등의 행사도 있었다.

바로크 오페라, <악테웅>과 <디도와 에네아스>

오페라는 바로크 시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정작 바로크 오페라를 접할 기회는 흔치 않다. 공연이 대개 베르디, 푸치니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시대 오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던



'캐나다 오페라 아틀리에'의 <악테웅>과 <디도와 에네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바로크 전문 오페라단인 '캐나다 오페라 아틀리에'는 2003년 <돈 조반니> 공연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악테웅>과 <디도와 에네아스>는 별개의 작품. 하지만 둘다 바로크 오페라인 데다, '상실과 슬픔'을 주제로 하고, 공연시간도 짧아서(각각 38분, 61분) 함께 엮어 무대에 올렸다. 지휘는 데이비드 폴리스가, 연주는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국립합창단이 맡았다.

러시아 피아니즘의 젊은 계승 알렉산더 멜니코프 리사이틀

☉ BBC가 선정한 '신세대 아티스트' 알렌산더 멜니코프가 4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을 열었다. 슈만 국제콩쿠르 최연소 수상, 쾨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우승 등으로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데뷔한 알렉산더 멜니코프는 대담무쌍하고 드라마틱한 연주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슈만 <고향적 연습곡>,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6번 등. 특히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6번은 30분간 연주되는 난곡으로 러시아 대륙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카페에서 펼쳐지는 연극 〈문학을 들려주다〉

☉ 홍익대학교 앞 이리카페와 카페 팩토리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연극을 한 편 올린다. 연극 〈문학을 들려주다〉는 무대가 되는 장소나 형식이 기존의 연극과는 사뭇 다르다. 관객들이 앉아 있던 카페의 테이블을 무대장치로 삼는다면, 은희경, 정미경, 정영문, 무라카미 하루키, 안톤 체호프 등의 작품을 희곡화하지 않고 거의 원문에 가깝게 들려준다.



이 공연은 홍익대 주변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이리'가 기획한 것으로, 그들은 "이 공연을 통해 관념적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인 카페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이함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

연극 〈열하일기만보(熱河日記漫歩)〉

☉ 극단 미추의 〈열하일기만보〉가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무대에 올랐다. 주목받는 극작가 배삼식의 신작 〈열하일기만보〉는 연암 박지원의 생애와 그의 글, 특히 그의 책 〈열하일기〉를 주된 모티브로 삼아 패러디한 창작극이다. 그동안 진중한 주제로 선이 굵은 작품을 선보여온 손진책이 연출을 맡았다. 우화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다양한 상징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경계선 안에 안주하려고 하면서도 본능처럼 품고 있는 인간의 호기심과 기이함에 대한 욕망을 주제로 한다. 정체불명의 짐승으로 나타난 주인공 '연암'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을 그려내는데, 이 짐승은 실제로



병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연암 박지원의 모습이 투영되어 탄생했다. 서이숙(연암), 정태화(강랑), 박영숙(기여), 황연희(구여) 등 극단 미추의 배우들이 출연했다.

누가 이 시대 정조를 꿈꾸는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대형 사극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가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됐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초연됐던 이 작품은 '2006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연출상(이윤택)과 음악상(강상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연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고쳐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메시지도 명확하게 가다듬었다. 특히 거중기를 이용한 '화성 축조과정'과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봉수당 진찬례'에서는 한국적 색채가 듬뿍 묻어난다. 이 작품은 정조가 꿈꿨던 미완의 개혁을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에게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 냉엄하게 성찰하자는 화두를 던진다. 민영기(정조), 고미경(혜경궁 홍씨), 박은태(영조), 임강희(장덕이) 등이 출연했다.

한일 공동창작연극 〈에에자나िका〉, 괜찮지 아니한가!

☉ 일본 극단 '1980'과 한국 음악극집단 '바람꽃'이 함께 만든 연극 〈에에자나िका〉가 2005년 초연 이후 다시 한국 관객들과 만났다(3. 16-18 경남밀양연극제, 3. 22-30 아르코예술극장). 일본어로 '괜찮지 아니한가'라는 뜻의 '에에자나िका'는, 일본 에도시대 말기 민중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에에자나िका 사회개혁운동'을 지칭한다. 이 연극의 원작은 일본 영화계의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의 1981년 영화 시나리오. 이를 극작가 후지타 덴이 연극으로 각색했고, 2006년부터는 재일 연출가 김수진이 연출을 맡아 새롭게 거듭났다. 음악은 원일과 바람꽃이 담당했다. 막부시대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어난 일본 하층집단의 혼란과 모순을 격정적이면서 역동적으로 그려냈다.



**이강백과 오태석 두 거장의 만남
연극 <황색여관>**

국립극단의 봄 정기공연 <황색여관>이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올랐다. 특유의 사회풍자와 은유로 정평이 난 극작가 이강백이 7년에 걸쳐 탈고한 작품을 지난해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오태석이 연출했다. 허허벌판에 자리한 황색여관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살인사건이 주된 줄거리다. '황색여관'이라는 제목에는 황색저널리즘이나 황사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 오영수(여관주인), 이상직(주방장), 서상원(변호사) 등 국립극단의 중견배우들이 출연했다.

**상상의 줄을 타고 부리는 곡예
태양의 서커스 <퀴담>**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단체 '태양의 서커스'가 <퀴담>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잠실종합운동장 광장 5천여 평의 부지에 태양의 서커스 전용공연장인 그랑 샤피토(Grand Chapiteau, 대형 천막극장)를 설치하고, 3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공연한다(매주 월요일은 쉼). 1996년 캐나다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16개국의 8백만 명 이상이 관람한 <퀴담>은 상상력 넘치고 몽환적인 이야기, 화려한 기교, 매혹적인 디자인, 영감 넘치는 음악의 결합으로 '예술로 승화된 서커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극 <시련>, '마녀재판' 을 고발한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연출, 제작을 맡았던 윤호진이 15년 만에 <시련>을 들고 연극무대로 돌아왔다.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 오른 이 작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아서 밀러(1915-2005)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마녀재판' 사건을 소재로 하는 이 작품은, 50년대 미국의 '매키시즘' 광풍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호진은 "최근에도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몰아붙이기식 여론이 쉽게 만들어져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작품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남자 주인공은 김명수(존 프락터)가, 여자 주인공은 이승비(아비게일)가 맡았다.



김수남 추모 사진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수남 타계 1주기를 추모하는 사진전이 2월 7일부터 21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학계와 문화예술계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미신타파'라는 명목으로 전통문화를 열시, 말살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에 김수남은 오히려 전국의 무속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진으로 기록했고, 1990년대에는 중국, 네팔, 인도 등 아시아 곳곳을 누비며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사진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김수남의 작업들 중 대표작을 엄선했다. 전시는 크게 김수남 사진 연대기, 한국의 곳과 예인들, 아시아의 곳,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간문화재 김금화를 비롯해 서순실, 이귀인, 이상순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며 각각 황해, 제주, 전남, 서울의 넋굿을 펼치기도 했다.



이상엽의 <중국 1997-2006>전

사진작가 이상엽이 '제1회 gallery NoW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작품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갤러리 나우에서 전시했다. 이 상은 2006년 4월 본격적인 사진전문 갤러리를 표방하며 개관한 갤러리 나우가 앞으로 미술시장을 이끌어갈 사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 이상엽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오지를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전시했다. 특히 10년간 격변해온 중국의 광활한 영토, 인구, 역사를 하루(아침-낮-밤)로 편집, 재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부분은 물론 전체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마리노 마리니:기적을 기다리며〉전

“우리 시대는 비극적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 속에는 비극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한 비극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해낸 구상 조각계의 거장 마리노 마리니(1901-1980)의 전시가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렸다. 마리노 마리니 재단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1978년 일본 순회전 이후 아시아에서는 20년 만에 처음 열린 대규모 기획전이다. 전시는 기마상, 초상, 포모나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이루어졌다.

〈앤디 워홀 팩토리 Andy Warhol Factory〉전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세웠던 공장(Factory) 전체를 조망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3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리움에서 열리는 〈앤디 워홀 팩토리(Andy Warhol Factory)〉전이 바로 그것. 실제로 'Factory'는 앤디 워홀이 본인의 작업실에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앤디 워홀 작고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의 다양한 작품과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피츠버그 앤디 워홀 미술관의 협조로 마련됐다. 그의 전성기

시절(1962-1968년) 실크스크린 연작들은 물론, 1950년대에 상업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그렸던 드로잉과 잘 알려지지 않은 포스터, 사진, 자화상 등까지 아우러져 그의 예술세계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직접 찍은 영상작품 8편도 상영되어(주말에만 해당), 영화제작자로서의 앤디 워홀도 엿볼 수 있다.

〈한국화 100년의 궤적〉전

한국 근대미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국화 100년의 궤적〉전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세종화랑에서 전시됐다(1부 2.2~2.14, 2부 2.23~3.11). 1부는 〈전통의 숲-창덕궁 내 핀 꽃들〉, 2부는 〈세계 속의 우리 그림-한국화의 위상전〉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궁중화가인 조석진, 안중식을 비롯해, ‘근대 여섯 대가’들 중 박승무를 제외한 허백련, 김은호, 이상범, 변관식, 노수현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2부에서는 이응로, 장우성, 김기창, 조방원, 박노수, 서세옥 등의 작품이 걸렸다.

**예술과 과학이 조우하는 지점
올라퍼 엘리아슨 개인전**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개인전이 국내 최초로 열렸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빛, 색상, 온도, 파장 등을 통해 인간의 지각능력과 물리학적 법칙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예술과 과학이 조우하는 지점을 추구한다.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PKM 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 조각, 드로잉,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횡단하는 그의 작품 12점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아날레마〉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궤적이 재현되는 설치작품이다.



청년 백남준에 대한 추억, 〈부퍼탈의 추억(Memories of Wuppertal)〉

故 백남준 타계 1주기 추모전이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전시명 〈부퍼탈의 추억(Memories of Wuppertal)〉에서 드러나듯, 이번 전시는 ‘청년’ 백남준을 추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63년 3월 독일의 작은 도시 부퍼탈에서 백남준은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는 후에 비디오 아트의 출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계 미술사에 기록된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첫 개인전을 비롯하여 당시 백남준이 펼쳤던 여러 퍼포먼스를 기록한 만프레드 레베의 사진연작이 공개됐다. 또한 그간 접하기 힘들었던 50, 60년대 백남준 초기작품 120여 점과 백남준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의 회고영상 〈백남준과 함께 한 나의 삶〉 등도 함께 전시됐다.